



# 그레이트 타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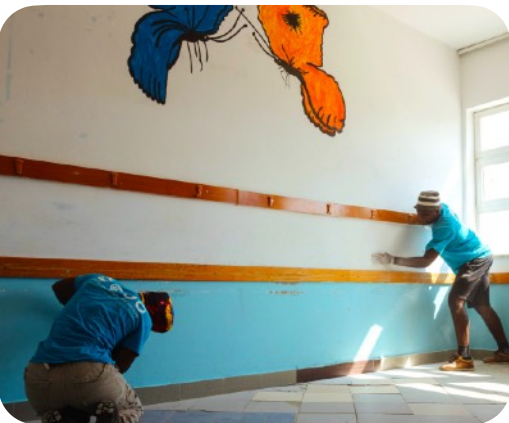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6절)



가족 사진: 알바니아, 지로카스트라 성에서

안녕하세요, 로고스호프에서 신선교사 가족입니다.

로고스호프는 지난 9월 1일 알바니아 블로라 Vlorë 2번째로 규모가 큰 알바니아의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알바니아는 남유럽의 발칸 반도 서부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로고스호프는 블로라에서 오엠 알바니아 팀과 연계하여 지역의 다양한 곳, 학교, 교도소, 재래 시장, 교회에서 운동 경기로, 지역 청소, 무료 돋보기 제작, 건물 수리 및 보수 등등으로 알바니아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교 건물에 페인트 도색 중인 선교사들



항구 인근 블로라 광장에서 문화 공연 중에



돋보기 사역 중에 성경 말씀을 읽는 현지 여성

주안이, 이안이가 이번 선상 학교 학기를 잘 마치고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상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는 또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또 수업에 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면 아이들은 새로운 학년이 됩니다. 아이들의 선상에서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알바니아 소녀들과 교제 중이 도은혜 선교사



한 학기 수업을 마친 이안이



제빵 체험 중인 주안이





단장 이취임식- 좌: 전임자 우: 후임자  
랜디 그레이비 에드워드 데이비드



새로 취임하는 단장 부부를 위해 기도하며



PST 훈련을 받고 있는 신입 선교사들

알바니아, 블로라에 도착한 로고스호프는 그 어느 때 보다 바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로고스호프의 단장 **Director** 으로 섬겨주신 랜디와 킴 그레이비(미국) 선교사 부부가 그 직책에서 내려오고 새로운 단장으로 에드워드 데이비드(말레이시아)와 그의 부인 헤더 데이비드(영국) 선교사 부부가 취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매년 2월과 9월은 선교선의 새로운 선교사들이 승선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로고스호프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재개발부(훈련부) 소속인 신사랑 선교사도 새로운 선교사들을 교육하느라 바쁜 시기를 보냈습니다. 선교선의 사역과 생활에 관한 교육 **PST: Pre-Ship Training** 그리고 선상 안전훈련 **BST: Basic Ship Training** 등 2주가 넘는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승선한 선교사들 중에는 한인 선교사들이 1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선상의 한인 선교사는 3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주안에서 강건하여서 기쁨으로 사역 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부 소속 선교사들



BST 훈련을 받고 있는 신입 선교사들



한인 선교사 환영회

## 기도해주세요

1. 새로 취임한 에드워드와 헤더 단장님 선교사 부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도력을 더해 주시도록
2. 새로이 승선한 선교사들이 선상 생활에 잘 적응하여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3. 신사랑&도은혜, 주안, 이안 선교사 가정이 은혜 안에 날마다 건강할 수 있도록

## 로고스호프 다음 행선지

**알바니아. 두러스** 10월 6일 ~ 10월 19일

**몬테네그로. 바르** 10월 20일 ~ 11월 8일



QR코드 링크



카카오톡 검색: '신사랑 도은혜 선교사'를 검색해주세요.